

# 간 암

편 집 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암의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암”에 의한 사망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면에서 암의 원인,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상식을 증상별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보사부자료제공

## 1. 간암의 개요

간암은 원발성 간암과 전이성 간암의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후자는 폐나 위등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이차적으로 간을 침범하는 것이다.

간암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찰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암덩어리에 의해 오른쪽 간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고, 촉진해보면 간경변증의 소견을 보이는 간표면에 돌덩이 같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암괴가 만져지게 된다.

혈청학적 검사로서  $\alpha$ -FP라는 간암환자의 혈액에서 주로 상승하는 물질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간암의 진단뿐 아니라 간암환자의 수술후 경과 관찰시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재발시에는 혈

액내에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간암 환자에서 이러한  $\alpha$ -FP가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는 초음파검사 및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촬영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술을 고려할 경우나 상기 방법으로 진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간암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까지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복강경을 이용한 간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간조직검사는 간에 침을 꽂아 끝에 묻어 나오는 간조직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인데 보통 치과에서 이를 뿔뿔 국소마취를 하는 것처럼 진통제주사를 맞고 하므로 언젠 했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환자도 많다.

**간암의 대부분의 경우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간에서 병발되는 예가 대부분이어서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양성인 간경변증 환자 4명중 1명은 5년내에 간암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간조직검사에 대해서는 도리어 괜한 공포심으로 실제보다 과장되게 느끼게 된다.

간을 뜯어 내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으나 실제 침 끝에 묻어 나오는 조직은 대개 1cm미만의 연필심 정도의 크기이고 간은 곧 재생되기 때문에 검사한 부위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이물게 된다.

조직검사는 간질환의 확진을 위하여 가장 유용한 검사이며 간에 있는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의 감별도 간조직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다.

간암과 같이 간의 일부에 병소가 국한된 경우에는 복강경검사를 시행하면서 간조직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복강경검사는 배꼽주위를 국소마취한 뒤 작은 피부 절개를 하여 기계를 넣어 시행하게 되는데 이 검사의 장점은 별 통증이 없으며 간표면의 전반적인 병변뿐만 아니라 담낭 및 복막도 검사하면서 이상 부위는 직접 검사침으로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육

안으로 관찰하면서 탐침으로 직접 지혈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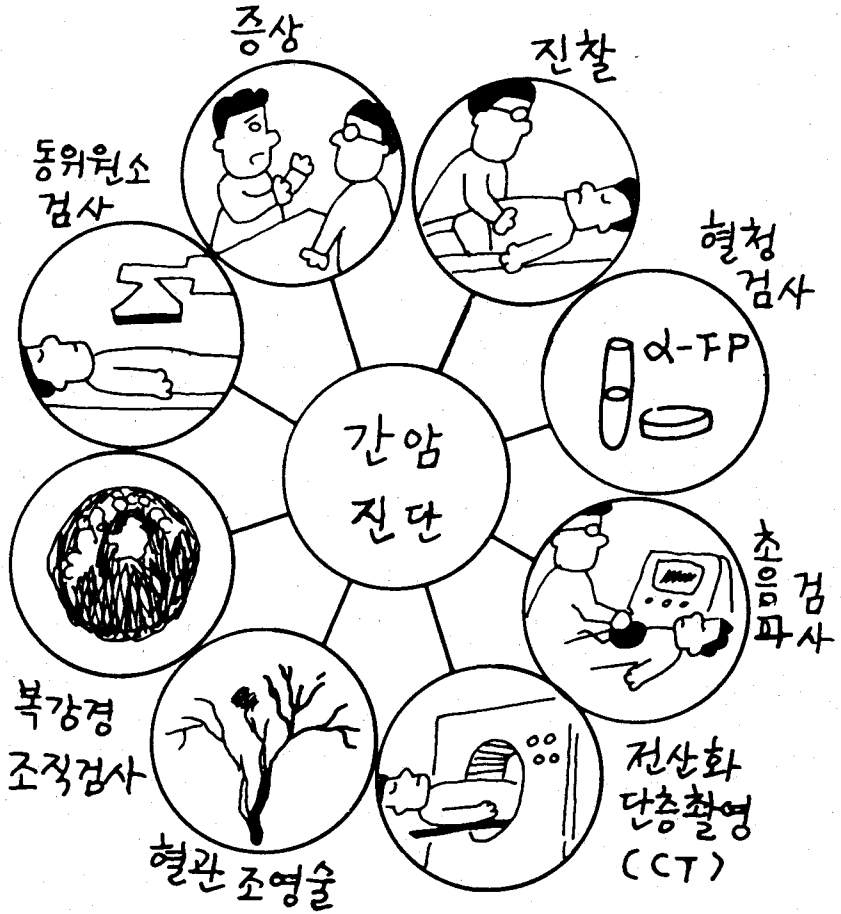
이밖에도 동위원소를 정맥내 주사하면 간암이 있는 부위에는 동위원소에 의한 음영이 나타나지 않는 간주사 같은 방법도 있으나, 간경변증이 심한 경우에는 유사한 소견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2. 간암의 원인.

간암의 대부분의 경우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간에서 병발되는 예가 대부분이어서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양성인 간경변증 환자 4명중 1명은 5년내에 간암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암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많은 인자들 가운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의 발생 원인을 암시하는 증거로는

- 1) 간암의 발생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율 사이에는 평행관계가 있으며
- 2) 간암 환자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혈청학적 검사가 높은 비율로 양성으로 나타나며
- 3) 간암, 간경변증과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보유상태는 한가족 내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 4) 간암 세포의 유전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일부가 발견되며
- 5) 간암세포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이 만들어지며
- 6) 사람의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유사한 동물의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동물에서도 간암이 발생하고,
- 7) 동일한 인구 집단내에서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간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B형 간염 바이러스만이 간암의 발생원인은 아니며 아플라톡신(곰팡이에서 생기는 독소: aflatoxin), 화학물질등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에서도 아플라톡신은 열대지방에서 곡식이나 견과류등에 묻어 있다가 사

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간암발생을 유발하게 되는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을 유발 하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알려지고 있다. 즉 아플라톡신이 사람의 세포면역체계를 약화시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보유율을 높이고 간암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